

멀랏에 바치는 러브레터... 덕혼 빈야드의 반세기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315

“유행은 바뀌었지만 멀랏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멀랏에 공개 러브레터를 보낸 이는 덕혼 빈야드다. 멀랏 품종 와인이야 전 세계적으로 워낙 큰 사랑을 받고 있으니 웬 유난인가 하겠지만 사랑의 시작이 1970년대 엽음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찐사랑’이다. 그것도 카버네 소비뇽의 위상이 절대적이었던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말이다.

덕혼 포트폴리오의 칼 코브니 수출 담당 이사는 최근 한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덕혼 빈야드의 역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꼽으라고 한다면 미국 멀랏 와인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라며 “멀랏이 다른 품종을 보조하는 블렌딩이나 쓰이던 시절, 덕혼은 멀랏이 보여줄 수 있는 우아함과 구조감 등 남들이 보지 못한 잠재력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덕혼 포트폴리오의 칼 코브니 수출 담당 이사가 최근 한국을 방문해 50주년을 맞은 덕혼 빈야드의 와인을 소개하고 있다.

덴 덕혼과 마가렛 덕혼이 덕혼 빈야드를 설립한 게 1976년이니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당시 나파밸리에 와이너리가 40개에 불과할 정도로 와인업계가 막대 동하던 시기였다. 특히 같은 해 열린 ‘파리의 심판’을 계

기로 카버네 소비뇽과 샤도네이가 각광을 받았지만 덕혼 빈야드는 설립 초기인 1978년부터 멀랏을 주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었다. 덴과 마가렛 부부가 프랑스 보르도에서도 생페밀리옹과 뽀므를 지역을 여행하면서 멀랏 와인에 깊이 매료된 것이 계기가 됐다.

칼 이사는 “멀랏 와인은 레드 와인의 구조감이 있으면서도 과실미는 풍부하고, 좀 더 마시기 쉽다”며 “처음 출시 당시 나파밸리 카버네 소비뇽 와인이 5달러 안팎일 때 12달러로 가격을 책정한 것도 오히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전했다.

덕혼 빈야드의 멀랏은 뽀므를 특유의 벨벳같은 질감과 함께 나파밸리 토양의 응집력이 더해지면서 신세계 멀랏 와인의 기준점이 됐다.

‘덕혼 쓰리 팜스 빈야드 멀랏’은 미국 최초의 싱글 빈야드 멀랏이다. 세 그루의 야자수(Three Palms)가 있다는 포도밭 이름처럼 따뜻한 경사지에 위치해 과실 품미가 풍부하고, 복합미와 농축미를 보여준다. 시음했던 2021 빈티지는 멀랏의 비중이 87%며, 카버네 소비뇽 11%에 말벡, 카버네 프랑 등이 들어갔다. 다소

이른 2021 빈티지임에도 마시기 편했고, 탄탄하면서 매끄러운 탄닌과 다층적인 품미가 입안을 가득 채웠다.

덕혼 쓰리 팜스 빈야드 멀랏 2014 빈티지는 지난 2017년 와인 스펙테이터가 선정한 100대 와인 가운데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와인 스펙테이터가 100대 와인을 발표한 이후로 멀랏을 주 품종으로 한 와인이 1위를 차지한 것을 덕혼이 두 번째일 정도로 흔치 않은 일이다.

안타깝게도 50주년을 맞은 올해 2월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인 덴 덕혼이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모든 와인 라벨에 오리를 새겨넣었던 덕혼답게 유가족들은 근조화환 대신 캘리포니아 물새 협회에 기부해달라고 부탁했다.

덕혼 포트폴리오는 나파밸리를 기반으로 한 덕혼 빈야드에서 출발해 이제는 11개 와이너리를 거느리고 있는 미국 최대 와인 브랜드 중 하나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사랑받는 디코이를 비롯해 패러덱스, 골드아이, 캔버스백, 칼레라, 코스타 브라운 등이 각각의 스타일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smahn1@metroseoul.co.kr



문화 단신

롯데시네마, 지역 상생 복합문화공간 만든다

부산대·금정구청·상인회와 상생 협약

복합문화공간 컬처스퀘어를 지향하는 롯데시네마가 전남 부산대학교, 금정구청, 부산대상가총연합회와 손잡고 지역 상생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롯데시네마 오투 공간을 공연·전시·지역 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가 펼쳐지는 복합문화 거점으로 확장해, 지역 주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상권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대학·지자체·상인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산·학·관 협력 모델’을 통해 단발성 행사가 아닌,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핵

심이다. 롯데시네마는 문화 행사가 가능한 시설 인프라를 제공하고, 각 기관은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지역 네트워크 연계를 담당한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문화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문화 수요와 상권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형 문화 활동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지역 인재와 상권, 문화공간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는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방문객 증가를 통한 상권 매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주말은 책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 여는 AI

디지털 전환(DX)과 인공지능 전환(AI)이 가속화 되는 가운데, 보건산업과 AI의 융합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서 ‘AI시대 보건산업론’이 출간됐다.

2016년 AI 바둑 소프트웨어 알파고 공개를 기점으로 인류는 ‘새로운 AI 시대(New AI Era)’에 진입했다. 이후 2022년 11월 오픈AI가 공개한 챗 GPT는 AI를 일상과 비즈니스 전반에 활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식 전환을 촉발했다. AI 폰, AI PC, AI 비서, AI 로봇, AI 휴머노이드 등이 전 산업에 구현되면서, 보건산업 역시 AI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받아들이는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AI는 신약 후보물질 발굴, 임상시험 설계, 바이오마커 탐색, 약물 상호작용 예측 등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전 과정에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그 결과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은 개발 기간을 30~50% 단축하고 비용을 25~50% 절감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AI시대 보건산업론’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 교재로, 총 3장으로 구성됐다.

1장 ‘보건산업의 이해’에서는 보건산업의 정의와 주요 특징,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의 변화, 헬스케어 경제를 선도하는 보건산업 발전 성과, 글로벌 보건산업 시장의 잠재력과 전망을 다뤘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의 보건산업 전략과 정책, 그리고 혁신 엔진으로 부상하는 미국·유럽·아시아·한국의 보건산업 클러스터 사례도 상세히 분석했다.

2장 ‘주요 보건산업들’에서는 의료서비스· 제약·



AI시대 보건산업론 김용환, 김억현 외 3명/계축문화사

바이오헬스·의료기기·화장품·시니어케어 등 6대 핵심 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글로벌 기업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최근 급성장한 바이오의약품 개요와 잠재력, K-뷰티로 대표되는 한류 기반 화장품산업의 글로벌 확장, 고령화 사회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한 시니어케어산업의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을 집중 분석했다.

3장 ‘AI시대 보건산업’은 이 책의 핵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헬스케어 산업의 생태계와 산업구조를 심층 분석했다. 피지컬 AI인 AI 헬스케어 로봇, 빅테크 기업의 AI 헬스케어 혁신 사례, 사회적·경제적 기대 효과까지 망라했다. 기존 보건산업 교재가 다루지 않았던 K-뷰티·시니어케어·디지털 헬스케어·AI 헬스케어 산업을 포함한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차별점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CGV, 한국 WBC 8강전 극장서 생중계

내일 오전 7시 30분 전국 12개관서 상영

CGV는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하 ‘2026 WBC’)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8강전 경기를 극장 단독으로 생중계한다고 12일 밝혔다.

CGV는 오는 14일 오전 7시 30분부터 미국 마이애미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대표팀의 8강전 경기를 CGV강변, 광주상무, 대구스타디움, 동수원, 서면, 연남, 영등포타임스퀘어, 왕십리, 용산아이파크몰, 인천, 창원더시티, 천안펜타포트 등 전국 12개 극장에서 생중계한다.

‘2026 WBC’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가대항 야구 대회다. 총 20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본선 1라운드를 치른 뒤 각 조 1·2위 팀이 2라운드(8강)에 진출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9일 호주와의 경기에서 2점 이하 실점, 5점 차 이상 승리라는 조건을 충족하며 극적으로 8강에 진출했다. 8강전 상대는 12일 진행되는 도미니카공화국과 베네수엘라 경기 결과에 따라 D조 1위 팀으로 결정된다.

‘2026 WBC 극장 생중계’ 예매 및 자세한 정보는 CGV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유엔 안보리, ‘이란 공격 규탄’ 결의 채택... 휴전 촉구안은 부결 /사진 뉴스스 ▲JP모건 “헤지펀드들, 한국 비중 확대했다 중동 리스크에 역풍”

▲중동 전쟁의 숨은 승자는 러시아?... 혼란 틈타 이란 지원·헝가리 공작 ▲IEA “사상최대 비축유 방출” 유가는 5% 상승

▲미국 세일 업계, 이란 전쟁에 ‘화색’... 50년 만에 세일 정유소 건설 ▲캄보디아 “사기 작업장 모두 폐쇄”... 단속 중 한국인 13명 체포